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Ⅰ 국민의힘 대덕구 제1선거구 Ⅰ

이 효 성 의원



“유보통합을 위한 인력증원이 필요합니다.”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이 효 성 의원

◎ 이효성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1선거구 오정동, 대화동, 법1동, 법2동 이효성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광역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사안을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유보통합 정책 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1월 30일 정부는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 · 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 · 돌봄 방안으로 유보통합 정책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유치원 ·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률 제 · 개정을 추진하여 2025년부터 영유아 담당을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으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영유아 교육, 보육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지자체는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교육청은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정책은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유보 이원화 체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유보통합은 역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풀어내지 못했던 오랜 숙원 과제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앙을 먼저 일원화한 후 지방을 일원화하는 방식의 유보통합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이원화된 채 쟁점 중심으로 접근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만 생겼던 지난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접근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처음 계획보다는 추진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년이 넘게 이원화된 정책을 단 2년 안에 일원화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예정되었던 정부의 유보통합 모델 발표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 27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계획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어 대전시교육청의 업무 추진 역시 크게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속도와는 별개로 대전의 유보통합을 위해 지역 내에서 선행해 추진해야 할 쟁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보육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는 4만 9,692명으로 파악됩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도 93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립유치원 재원 중인 유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과 공립·사립유치원을 모두 일원화하는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대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청 교육국장, 시청 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총 37명의 대전 유보통합 추진단을 지난해 9월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유보통합에 따른 지방단위 업무이관 준비 및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교육청의 8개 부서, 시청의 4개 부서, 자치구의 보육지원팀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유보통합 이관 준비팀을 신설해 유보통합 도입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있는데 일반직 6명으로 시작한 준비팀에 지난 3월 1일 자로 교육전문직 4명이 더해지면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유보통합 이관 준비팀 역할이 시작되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유보통합 이관 준비팀의 조직과 인력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유보통합을 이뤄내는 데 충분한지 걱정이 됩니다.

2024년 보육예산 현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지자체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사업은 대분류만 11개에서 12개 사업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어 대전시의 전체적인 보육사업을 파악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로 보입니다.

대전시의 2024년도 지자체 사업 보육예산은 대전시 500억 원과 자치구 139억 원입니다.

이 중 많은 사업이 의무지출비가 아닌 재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유보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위한 논의를 위해서 대전시, 자치구, 대전시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현재 10명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이관 준비팀에 시청과 교육청의 인력이 추가로 증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대전시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영유아보육 업무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여기에 지자체 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서는 제가 제안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대전시 유보 통합을 위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광역시에는 현재 10곳의 특성화고등학교, 2곳의 마이스터고와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학생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니 2023년도 기준 학생 수는 5,368명으로 전체 고교생의 약 13.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17.4%였던 비율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계고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조 변화, 코로나 이후 달라진 취업환경, 학령기 학생 수 감소,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수업료,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방과후수업 등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만 있었던 혜택 대부분이 보편적 무상교육으로 거의 바뀐 점도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의 직업계 고등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9월 관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중 계열별 4곳의 학교를 방문해 교장선생님과 면담하고 학교의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열어 관내 12곳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모시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고 그 내용과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 직업교육 현황을 바탕으로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계 고등학교 인식 개선 · 홍보 방안입니다.

제가 만난 학부모와 학생들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학교 선택이 쉽지 않았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학교에 들어와 보니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중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해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대전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인식개선교육을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간담회장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자녀가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지난해 대전시교육청에서 진행했던 직업계고 축제 안내를 받지 못했음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직업계고 관련 행사가 있는 경우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방안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은 주로 교육부의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학과 개편이 단위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 수 모집이 잘 되는 인기학과가 학교별로 중복되어 설치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직업계고 진단을 통해 전면적인 체제 개편을 해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의 특화 모형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분야 중심 재구조화 전략을 세워볼 때입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제가 제안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시장님!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교육청 직업교육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정책실효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호주 브리즈번시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직무 영어, 직무교육, 현장실습 운영을 통해 현지 취업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전국 모범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일 취업과정도 추가로 확대되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 학습을 시행합니다.

대전시의 대응투자 비율을 높여 사업을 확대해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일류도시 대전의 비전을 실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구, 부산 등 타 시·도에서는 직업계고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투자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대전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하고 싶어하는 지역은 대전입니다.

하지만 연봉과 복지혜택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타 시·도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해서 대전시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고 대전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미 대전에는 공기업, 연구원, 중소기업 등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취업 티오 확보 등 기업과 연계한 정책에 시장님이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달 말 대전시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사업 전략과 연계한 인재양성 플랫폼 조성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핵심에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정주여건 개선의 효과까지 해낼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제가 제안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효성 의원님께서서는 유보통합 추진현황과 직업계고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과 또 학생 진로 설계 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오는 6월 말에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지방 차원의 이관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지방업무 이관 공동지침을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보육업무 이관 준비 및 공동대응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직, 예산, 사업 담당 부서장과 팀장 총 37명으로 대전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육 예산 및 사업 공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하여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전에서 교육부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등 교육청과 협력하여 차근차근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집은 지방정부인 대전광역시에서 모든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이원화 시스템은 빠르게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통합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과 대전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대로 통합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교육청 내에 유보통합 이관 준비팀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조직 구성계획에 따라서 10명 규모로 구성되었고, 또 교육부의 지방업무 이관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보육업무 이관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방 이관과 관련된 전국 공동 지침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고 또 교육청의 필요 인력의 지원 등 요청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께서서는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직업계고 학생의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2년부터 현장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 교과를 운영하는 일반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380명을 파견했고 294명이 취업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 관계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요.

본 사업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매년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매도시인 호주 브리즈번시를 연계해서 직업계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영어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3학년이 되면 직무 분야별 국외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일 인턴십을 확대 운영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직업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직업계고 특성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안전한 현장실습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직업계고 취지에 맞는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직접 지원도 검토했으면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는 교육감님이 사실상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우선 교육감님이 먼저 하고 교육감님께서 요청을 할 시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서는 기업 연계 취업 및 정주여건,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진로설계와 면접지도 등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희망이음 기업탐방,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사업에 직업계고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대학과 협력하는 진로설계나 취업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직업계고, 대학, 기업이 연계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 선정으로 해마다 100억 원의 국비와 규제특례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대전교육발전특구는 인재 양성과 정주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주요 핵심내용입니다.

지역 대학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초중급 숙련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협약형 특성화고 집중 육성으로 지역 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받고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원스톱 서비스 개념인 대전희망인재 인증제를 시행해서 학생들에게는 취업연계 장학금과 기업에서는 임금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좀 전에 사전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대전시가 추진하는 4대 전략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9개의 대학에 학과 개편을 요청했고, 지금 충남대를 포함한 많은 대학들이 대전시의 전략사업과 연계해서 학과를 상당히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인재 육성 또 바이오 분야에 대한 인재 육성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인재 육성 또 나아가서 국방 관련된 드론이나 로봇, 센서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를 육성할 수 있는 인재 프로그램에 대학이 이미 동참을 했고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노동부에서 하는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대전시와 긴밀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나아가서 폴리텍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들은 사전에 맞춤형으로 학교하고 협약을 맺음으로써 바로 졸업과 동시에 기업에 가는, 최근에 머크 같은 경우 아시아·태평양 공장을 대전에 지으면서 가장 대전시에 많은 문의를 했던 것이 사람 부분입니다.

과연 생산인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지 또 영업인력이나 관리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시인지, 또 최우수 핵심 연구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문의를 대전시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미 특성화 고등학교, 폴리텍대학 그리고 19개의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나 취업계 고등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4대 전략산업과 관련된 학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학과를 추가로 개편한다면 상당히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교육감님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역에 있는 우수한 취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이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또 이 지역에 사는 것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효성 의원님께서 유보통합과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었고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라서 각 시·도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했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일원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통합 정책은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또 돌봄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시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교육청의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10명으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유보통합 담당을 신설하였고 유보통합에 따른 조직 및 재정 이관은 교육부의 지방업무 이관 지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시·구청의 업무를 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유아 보육업무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도 시청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전 유보통합추진단, 대전 유보통합 분야별 실무협의회 등 교육청과 시·구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유보 관리 체계의 일원화 및 안정적인 대전 유보통합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유보통합에 따른 지방 단위 업무 이관 준비 및 공동대응을 위해 교육청, 시·구청 영유아 업무 관계자 37명으로 대전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추진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영유아 보육예산, 사무분장, 자치법규 등을 공유하였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상호기관 방문, 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해 시·구청과 지속적으로 정보교류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및 가족을 대상으로 대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체험활동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 부모

교육 영상물 제작 등을 추진하였고 시·구청과 지방업무 이관을 위한 조직 및 재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구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보통합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중학교 단계의 인식 개선과 홍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위해 2023학년도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시험기간 이후를 활용한 직업계고 방문, 학과 체험을 실시하였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설명회를 실시하여 직업계고 진학과 학과 정보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자녀 진로설계 학부모 연수도 실시하여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직업계고 정보 제공을 위해 직업계고 입시박람회를 개최하여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별 입학 안내 및 상담부스 운영, 학부모 자녀 진로 설계 연수, 학과 소개 및 홍보 코너 운영, 졸업생 성공사례 제시 등 직업계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홍보 채널 다양화 방안으로는 직업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동영상 TV 송출 500여 회, 언론사 공동 홍보캠페인 24회를 실시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직업계고 학과 탐방 및 소개 영상 제공, 각종 직업교육 행사 안내 등 홍보활동을 다양화하여 제공하며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활용해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업계고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업계고는 경쟁력 강화와 우수학생 확보를 위해 산업 수요와 학생 요구를 반영해 선제적인 학교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5년간 11개교, 29개의 학과를 개편하고 시설 구축 및 기자재 확충과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과 개편 신청 시 일부 학과를 선호하는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전교육청에서는 대전교육정책연구소를 통해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전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 지역 내 직업계고의 지리적인 분포와 통학거리 및 지역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수요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 유망 분야 신산업인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등 수요에 맞춘 대전교육청의 특화 모형 학과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지자체 또 기업체, 대학, 유관기관과 함께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대전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마련하는 한편, 체계적인 학과 개편을 지원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쟁력 있는 직업계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해 주신 이효성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